



가정상담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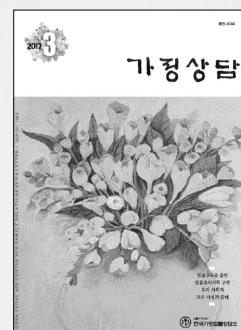


상담소의 2017년도 정기 전기 이사회가 지난 2월 23일 열려 2016년도 사업에 대한 감사보고와 201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관련기사 32면)



본소의 2017년도 상반기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위원장 김상용)가 지난 2월 8일 본소 8층 교육실에서 직원재교육을 겸해 개최되었다. (관련기사 32면)

- 4 • 이 달의 메시지
- 6 • 특집 I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6년도 상담 통계
- 18 • 특집 II |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제11강
- 24 • 가정폭력상담실
- 28 • 인터넷 상담
- 29 • 좋은 책
정희진처럼 읽기
- 30 • 임상실습 소감문
- 32 • 상담소 소식
- 34 • 결혼과 인생(169) 만화일기
그 여자의 봄 _ 장차현실
- 35 • 지부소식
- 36 • 상담통계
- 37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이 달의 메시지

우리 모두,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3월이 되기를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겨울 꼬트머리 찬바람이 아직 남아서 온기가 그림기는 해도 햇살은 따뜻하니 봄이 오는가 봅니다.

신입생이 되거나 사회로 진출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달, 3월입니다. 3월은 유치원을 마치고 초등학교 그 다음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조금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대학교에 진학하는 등 많은 청춘들이 새로운 길 앞에 서게 되는 시기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무사히 잘 거쳐서 한 단계 도약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노력에 대한 정당한 결실이 보장되고, 현실의 고통이 그들의 무릎을 꺾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앞날이 불안한 현실에서 축하받을 일이 못된다고 생각하여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는 대학 졸업생들이 많고 심지어 졸업장도 찾아가지 않는 이들이 많다는 언론의 보도를 보고 나니 착잡한 심경이 됩니다.

세계적인 불황, 극단적인 양극화,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절벽의 문제가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보다 이러한 현실의 직격탄을 맞

고 있는 것이 20, 30대 젊은이들이고 보니 기성세대로서 그들에 대해 무엇보다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로 이 세대들이 부모세대 보다 못 살게 되는 첫 세대라고 하니 그 부모세대로서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되어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탄핵정국으로 더 큰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으니 특히 그렇습니다. - 이 메시지를 받아 보시게 되는 즈음에는 우리 역사 발전을 위한 현명한 결론이 도출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상담소에서 자원봉사나 실무수습을 하고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보아도 그렇고 상담실에서 만나게 되는 그들의 부모세대들을 보더라도 어느 한 세대도 문제없이 온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보여 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인생은 모두 공평하게 생로병사를 겪듯이, 불행과 고통 한 점 없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요즘의 젊은 세대들 앞에 놓인 현실에는 그들의 책임보다 기성세대의 책임이 더 큰 것이 분명하기에 선부른 충고에 앞서 뉘우침과 반성 그리고 그들에게 삶의 경험에서 얻어진 따뜻한 격려를 해주고 싶습니다. 포기에 포기가 겹쳐 N포 세대라 자조하는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라는 이야기는 공허해 보일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꿈과 희망을 잃지 말라고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전쟁과 분단을 몸으로 겪고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을 이루어온 기성세대들의 성과와 한계 또한 바르게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분단의 역사, 불완전한 민주주의, 허약한 경제, 진정한 어른이 되지 못한 일부 기성세대들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젊은 세대들이 미래를 위해 한 걸음 씩 전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어 주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서로 힘을 합쳐 더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보람과 희망을 찾으며 성장해서 다음의 세대들에게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봄, 새로운 길 앞에 선 모든 이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노부모 부양, 노부모 성년후견, 노년이혼 등 고령화사회 관련 상담 큰 폭 증가

- 노부모 부양관련 상담 10년 전에 비해 3.7배 증가
- 노부모 성년후견관련 상담 2013년(시행 첫해)에 비해 5.3배 증가
- 남성 이혼상담, 과거에는 30~40대가 많았으나, 2016년에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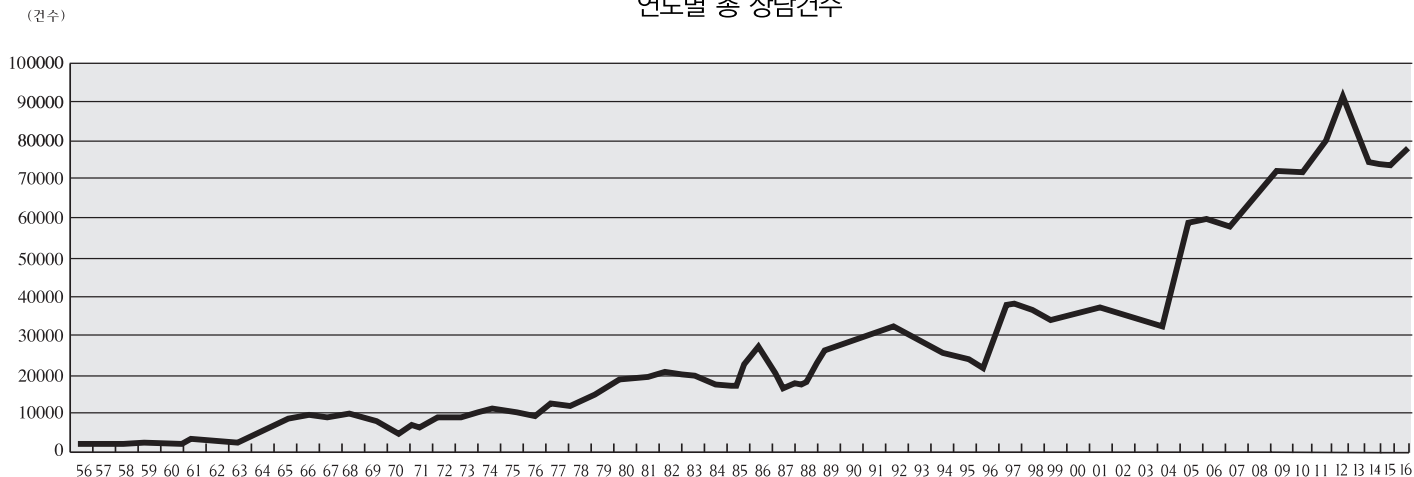
「60대, 70대, 80대 노년 이혼」

- 10년 전에 비해 60대 이혼상담 건수, 여성은 4.0배, 남성은 7.1배 증가
70대 이혼상담 건수, 여성은 11.0배, 남성은 32.0배 증가
80대 이혼상담 건수, 여성은 9.0배, 남성은 15.3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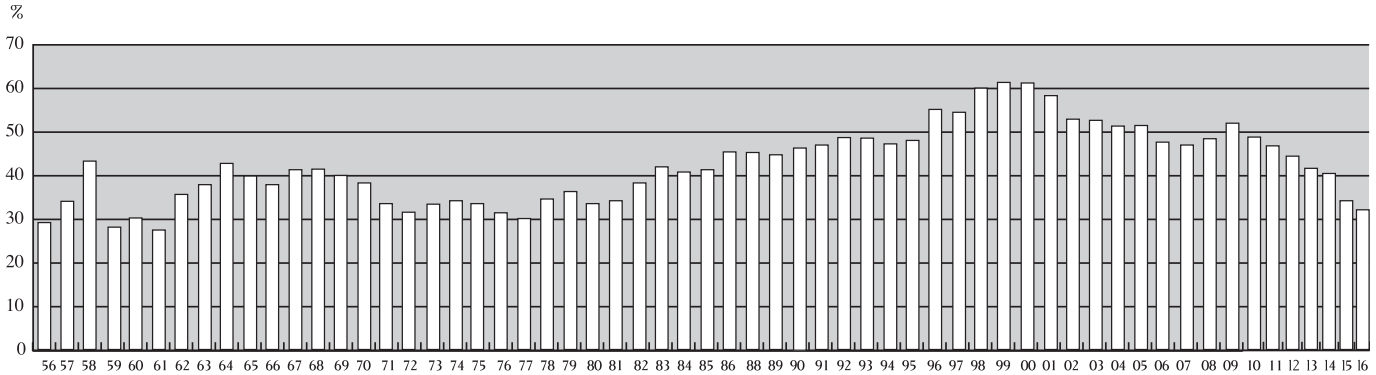
2016년 한 해 동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총 150,001건을 상담하였다(본부 총 77,626건, 전국 29개 지부 72,375건).

본부의 2016년도 상담 77,626건(2015년 74,468건)을 상담처리별로 분석하면, 법률상담 71,343건, 화해조정 3,602건, 소장 등 서류작성 2,120건, 소송구조 561건이었다. 한

연도별 총 상담건수



연도별 이혼 상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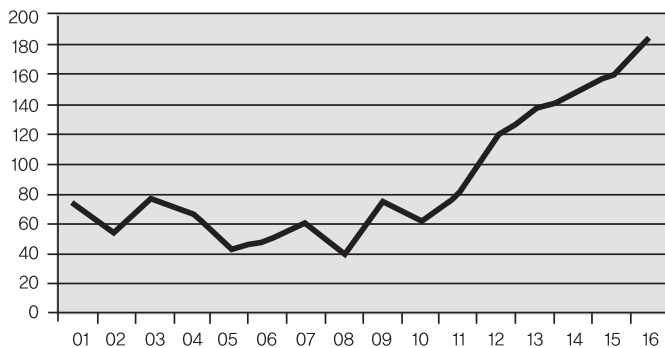


편, 상담방법별로 분석하면, 면접상담 22,067건, 전화상담 52,685건, 통신상담 2,825건, 지상상담 18건, 순회상담 31건이었다. 본부의 2016년도 면접상담 22,067건 중에서는 이혼상담이 31.6%(6,969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부부 갈등 13.0%(2,868건), 유언·상속 10.1%(2,239건), 가사기타 6.9%(1,520건), 파산 4.3%(954건), 양육비 4.2%(928건), 위자료·재산분할 4.2%(920건) 순으로 나타났다.

노부모 부양관련 문제 상담 건수 10년 전에 비해 3.7배 증가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부모 부양에 관해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2010년 60건, 2011년 79건, 2012년 116건, 2013년 134건, 2014년 145건, 2015년 158건, 2016년 183건). 10년 전인 2006년과 건수를 비교해 보면 3.7배 증가한 수치이다(2006년 49건, 2016년 183건).

연도별 부양관계 상담건수



내담자가 자녀인 경우에는 노부모 부양을 회피하는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부양의무를 나눌 수 있는지, 가출이나 이혼 등으로 자신을 양육하지 않았던 부모 또는 모에 대해서도 자신이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지 등에 대해 물어왔다. 한편, 내담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부양을 외면하는 자녀로 인하여 정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며 자녀들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왔다.

● 부양관계 상담사례 1 (내담자 50대 여성)

오빠가 고등학교 무렵 아버지가 사망하였다. 어머니는 온갖 고생을 하며 오빠의 대학학비는 물론 결혼할 때 집도 사 주었다. 그러나 오빠가 어머니를 모시지 않아 현재 어머니는 우리집에서 머물고 있다. 내가 오빠에게 어머니 부양료를 분담하자고 했으나 오빠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빠는 재산도 많고 연금 수입도 있다. 오빠에게 부양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가?

● 부양관계 상담사례 2 (내담자 30대 여성)

내가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였다. 아버지가 도박을 심하게 하였고, 엄마와 이혼 전에도 집에 와 돈만 가져갔다. 내가 성인이 된 후 아버지의 도박빚을 갚아준 적도 있다.

빚을 갚아주면 열심히 사는 척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찾아와 돈 요구를 하곤 하였다. 지난 몇 년 간 내가 매월 얼마씩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보냈으나 그 돈도 도박에 사용해 1년 전부터는 송금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법원에 부양료심판청구를 했다. 나는 어머니도 부양하고 있는데 어려서 나를 양육하지 않은 아버지도 계속 부양해야 하는가?

● 부양관계 상담사례 3 (내담자 60대 여성)

나는 아들이 결혼한 후 앞뒤동에 살며 손자를 봐줬고, 그 집 빨래까지도 도맡아서 해 주었다. 손자가 6살될 때까지 내가 데리고 자며 지극정성으로 돌봤다. 그런데 몇 년 전 내 소유로 있던 작은 집을 팔면서 아들, 딸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 때부터 자녀들이 연락조차 안하고 내손으로 키운 손자들도 보여주지 않았다. 예전에는 아들이 생활비를 줘서 살았고, 연락이 끊긴 후부터는 집 판 돈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어 매우 곤궁한 상황이다. 아들과 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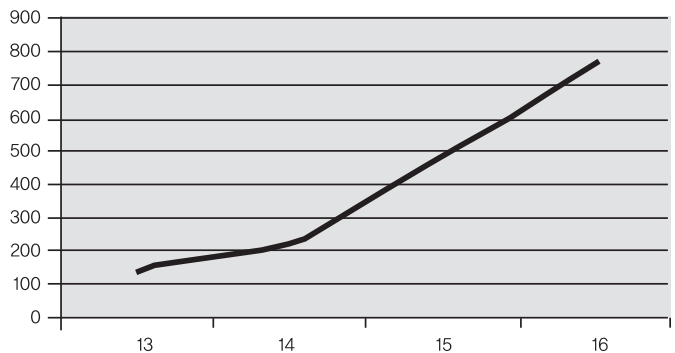
성년후견에 대한 상담 건수

시행 첫해인 2013년에 비해 5.3배 증가

2013. 7. 1. 한정치산, 금치산제도를 대체하는 성년후견 제도가 개정민법에 신설되었다. 시행 첫해인 2013년에는 성년후견에 대한 상담이 143건이었으나 2014년에는 211건, 2015년에는 469건, 2016년에는 76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치매나 질병 등으로 인해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운 부모나 배우자를 위해 성년후견을 문의해왔고, 일부 내담자들은 선천적 장애나 사고로 인해 법률행위 능력이 부족한 성인자녀나 형제들을 위해 성년후견을 문의해왔다. 이 때 보호를 필요로 하

연도별 성년후견 상담건수



는 피후견인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 등을 통해 장래에 재산을 받을 예정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이가 피후견인의 부모나 배우자일 때에는 가족 간에 특별한 갈등이 없으나 형제나 자녀인 경우에는 다른 형제자녀 간에 갈등과 마찰이 심각한 상황이다.

● 성년후견 상담사례 1 (내담자 70대 여성)

남편이 오랜 기간 치매를 앓다가 얼마 전 뇌진탕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 중이다. 현재 재산은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작은 주택이 전부이다. 병원비와 생활비 문제로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은행에서는 주택명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답답해서 아들과 함께 찾아왔다. 당장 돈이 급한데 성년후견을 신청하는 절차와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가?

● 성년후견 상담사례 2 (내담자 20대 여성)

아버지가 3년 전 갑자기 쓰러졌고, 현재는 모든 신체적 기능이 장애 상태여서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일 수 있다. 아버지는 현재 매월 200만원 가량의 연금을 받고 있다. 이복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아버지의 연금을 실질적으로 수령하면서도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는 병원비를 내지 않아 계속 밀리고 있다. 내가 독촉을 하면 그 때서야 마지 못해 내곤 한다. 내가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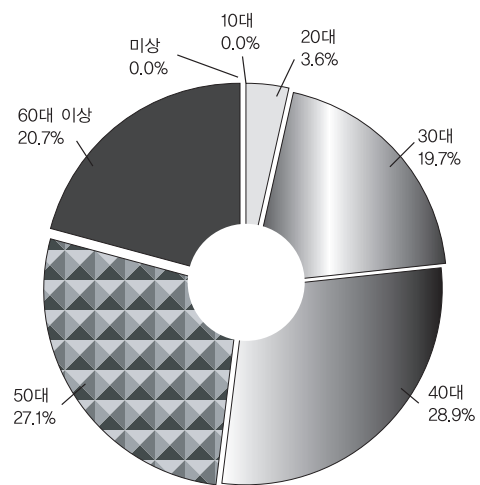
● 성년후견 상담사례 3 (내담자 60대 여성)

아들이 10여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뇌병변 1급 장애인 이 되었다. 아들 혼자서는 전혀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다. 걸어다니지도 못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말도 잘 하지 못 한다. 아들 앞으로 나온 보상금이 있는데 병원비 등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다. 내가 아들의 성년후견인이 되는 방법 은?

● 성년후견 상담사례 4 (내담자 60대 여성)

동생이 젊어서 자영업을 했고,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그런데 갑자기 불치병인 루게릭에 걸려 전혀 활동을 못하고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 조카들과 올케가 병 간호는커녕 동생을 제대로 부양조차 하지 않는다.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어떻게 하는 것이 동생을 위하는 것인지 고민이 되어 찾아왔다. 방법이 없는가?

이상(626명, 31.9%)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남성의 경우 과거에는 30~40대의 비율이 높았으나 2016년 들어서는 60대 이상이 30~40대를 제치고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들이 내세운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40대 여성은 6호(44.6%, 기타사유-장기별거, 경제갈등, 성격차이, 생활무능력 순), 3호(29.2%, 남편의 폭력), 1호(13.2%, 남편의 외도) 순이었고, 60대 이상 남성은 6호(59.4%, 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배우자의 이혼강요 순), 2호(22.0%, 아내의 가출), 1호(12.1% 아내의 외도) 순이었다.



여성의 연령별 이혼상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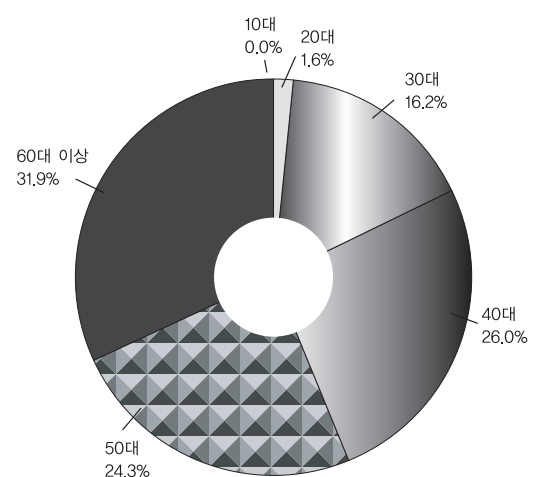
이혼상담

총 6,969건, 여성내담자 5,009건(71.9%),
남성내담자 1,960건(28.1%)

여성은 40대, 남성은 60대 이상,
나이차는 남편 1-2년 연상, 혼인기간은 1-11년,
여성 직업은 전업주부, 남성 직업은 회사원,
남녀 모두 초혼, 남녀 모두 고졸의 이혼상담이 가장 많아

여성은 40대, 남성은 60대 이상의 이혼상담 비율이
가장 높아

이혼의 경우 여성은 40대(1,445명, 28.9%), 남성은 60대



남성의 연령별 이혼상담 비율

노년 이혼상담 건수 큰 폭으로 증가

10년 전에 비해

60대 이상 이혼상담 건수, 여성은 4.9배, 남성은 10.4배 증가
 60대 이혼상담 건수, 여성은 4.0배, 남성은 7.1배 증가
 70대 이혼상담 건수, 여성은 11.0배, 남성은 32.0배 증가
 80대 이혼상담 건수, 여성은 9.0배, 남성은 15.3배 증가

2015년에 비해 60대 이상 남녀의 이혼상담 비율 및 건수가 모두 증가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여성 18.1%(996건)→20.7%(1,038건), 남성 27.2%(524건)→31.9%(626건)]. 특히 10년 전인 2006년과 건수를 비교해 보면 여성은 4.9배, 남성은 10.4배 증가하여 노년층의 이혼 상담 건수가 가파

60대 이상 남녀의 연도별 이혼상담 비율

	여 성	남 성
2006년	211명(6.1%)	60명(11.4%)
2007년	216명(6.0%)	68명(9.0%)
2008년	209명(5.8%)	70명(12.4%)
2009년	213명(5.5%)	79명(12.5%)
2010년	254명(7.0%)	57명(10.5%)
2011년	402명(9.2%)	122명(15.0%)
2012년	521명(11.4%)	175명(21.0%)
2013년	689명(12.4%)	272명(20.1%)
2014년	752명(14.8%)	373명(26.1%)
2015년	996명(18.1%)	524명(27.2%)
2016년	1,038명(20.7%)	626명(31.9%)

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여성 6.1%(211건)→20.7%(1,038건), 남성 11.4%(60건)→31.9%(626건)].

이혼상담을 받기 위해 상담소를 방문한 60대 이상 여성은 총 1,038명이었고, 이들 중 60대는 744명, 70대는 276명, 80대는 18명이었다. 또한, 60대 이상 남성은 총 626명이었고, 이들 중 60대는 356명, 70대는 224명, 80대는 46명이었다.

이들이 내세운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60대와 70대는

6호(60대 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70대 기타사유-성격차이, 장기별거, 경제갈등 순),
 3호(남편의 폭력), 1호(남편의 외도) 순,

80대는

3호(남편의 폭력),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경제갈등 순),
 1호(남편의 외도) 순이었다.

또한, 남성의 경우

60대와 70대는

6호(60대 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여성 이혼사유 순위별	남성 이혼사유 순위별
60대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3호(남편의 폭력)	2호(아내의 가출)
	1호(남편의 외도)	1호(아내의 외도)
70대	6호(기타-성격차이, 장기별거, 경제갈등 순)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배우자이혼강요 순)
	3호(남편의 폭력)	2호(아내의 가출)
	1호(남편의 외도)	1호(아내의 외도)
80대	3호(남편의 폭력)	6호(기타-성격차이, 장기별거, 배우자이혼강요 순)
	6호(기타-장기별거, 경제갈등 순)	2호(아내의 가출)
	1호(남편의 외도)	3호(아내의 폭력)

70대 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순),
2호(아내의 가출), 1호(아내의 외도)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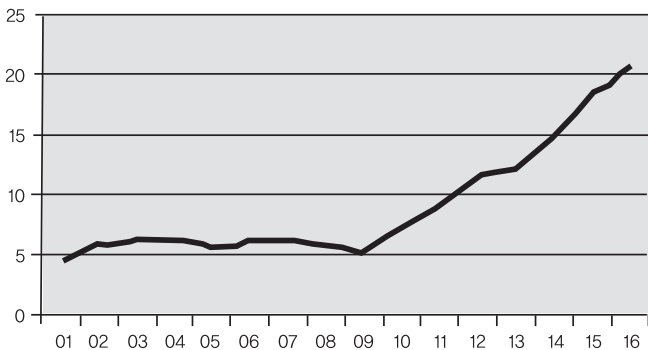
80대는

6호(기타사유-성격차이, 장기별거, 배우자의 이혼강요 순),
2호(아내의 가출), 3호(아내의 폭력)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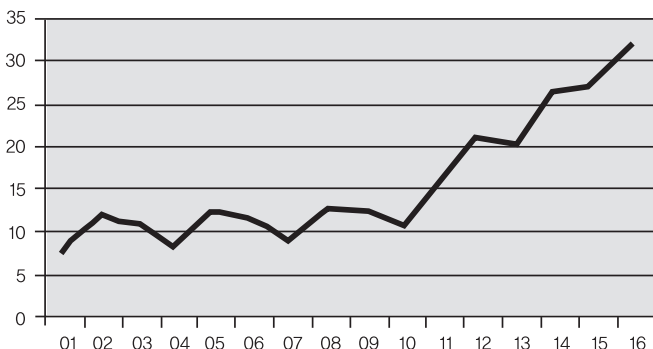
연령별로 10년 전인 2006년과 건수를 비교해 보면, 여성은 60대 4.0배(184건→744건), 70대 11.0배(25건→276건), 80대 9.0배(2건→18건) 증가하였고, 남성은 60대 7.1배(50건→356건), 70대 32.0배(7건→224건), 80대 15.3배(3건→46건) 증가하였다.

노년 이혼 증가의 원인을 살펴보면, 여성은 기대 수명 증가, 소득 활동 증가, 여기에 법개정에 따른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 상승과 연금 분할 가능으로 이혼 후 경제적 불안감이 감소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연도별 60대 이상 여성 이혼상담 비율



연도별 60대 이상 남성 이혼상담 비율



한편, 남성은 은퇴 후 경제적 무능으로 인한 가정 내 지위 하락, 아내 및 자녀들의 무시, 냉대에 따른 고립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미 장기별거나 한 집 별거에 익숙해지면서 가사일에 비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혼자 사는게 가능해짐에 따라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내려놓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해진 것도 이유로 보인다.

● 6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60대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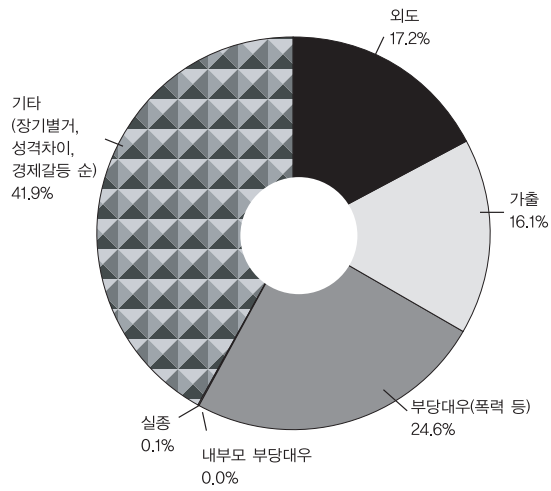
15년 전에 아내가 나 모르게 보증채무를 지고, 나도 실직하는 등 경제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면서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아내가 집을 나갔다. 당시 초등학교이던 아이들은 얼마 후 아내에게 갔고, 이후 아내 및 자녀들과 연락 없이 지냈다. 나는 현재 아이들이 어디 사는지도 알지 못한다. 오래 별거하였으니 이제는 이혼하고 싶다.

● 6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60대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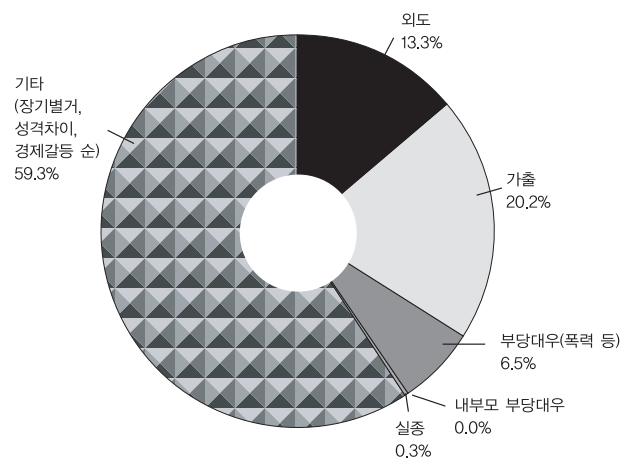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았다. 남편은 퇴직 후 주식을 하면서 많은 손실을 본 것 같다. 내가 여러 번 말렸지만 좀처럼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남편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나는 같이 사는 것이 너무 괴롭다. 남편과 친밀감도 없고 평생 남처럼 살아왔다. 나는 이제라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싶다.

● 7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70대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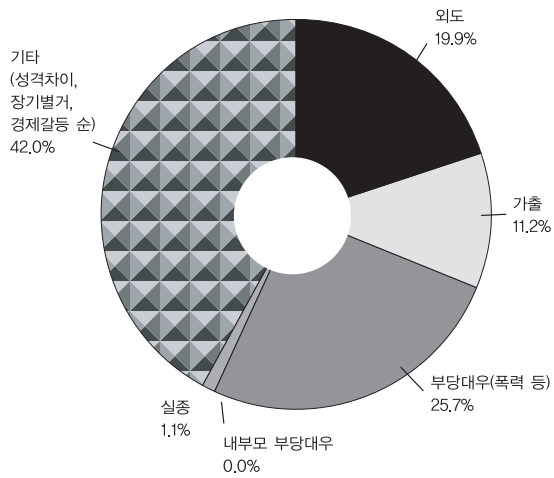
어머니가 오래 전 돌아가셨지만 아내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아내와 대화를 하자고 하면 무조건 이혼서류부터 떼어오라고 한다. 집에 와도 대화가 안 되니까 밖에서 술을 마시고 오는 적도 많았다. 딸이 있는데 딸도 아내 편을 들고 나와 대화하려 하지 않는다. 내 평생 아내에게 미안하다거나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혼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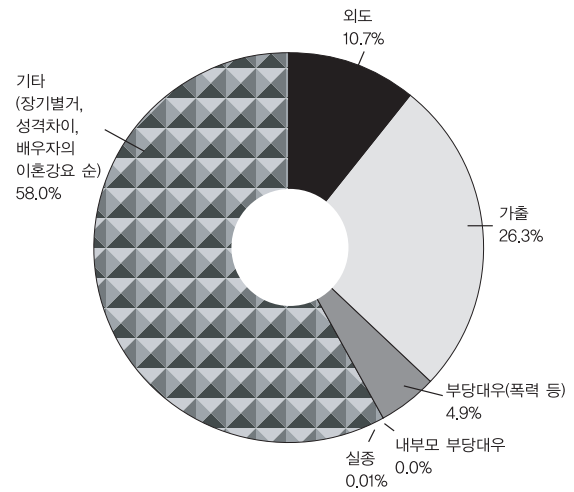
60대 여성의 이혼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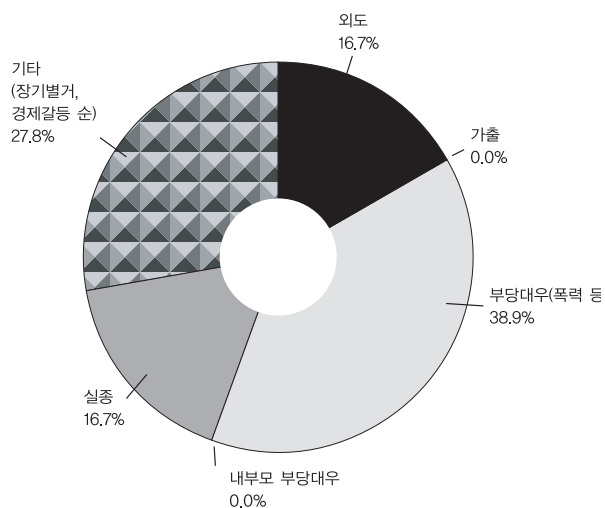
60대 남성의 이혼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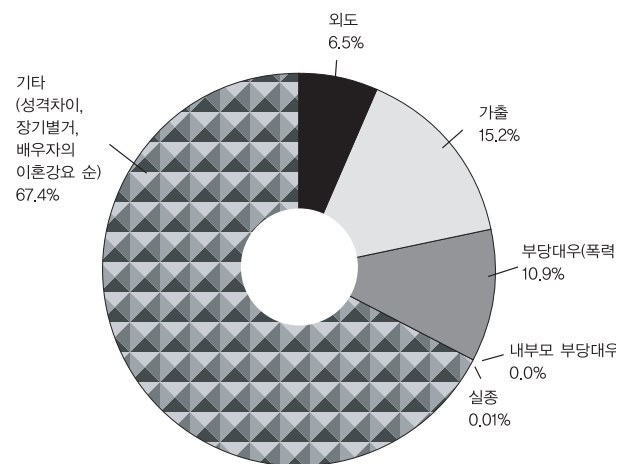
70대 여성의 이혼사유



70대 남성의 이혼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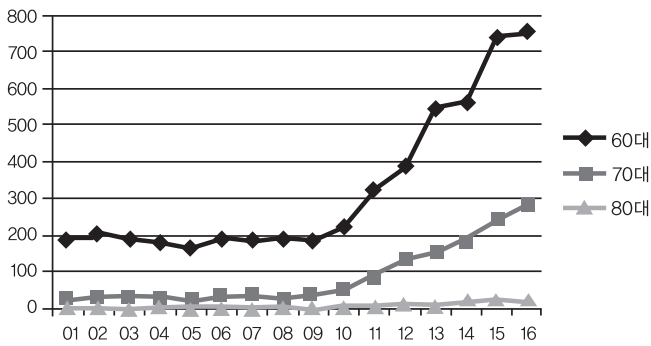


80대 여성의 이혼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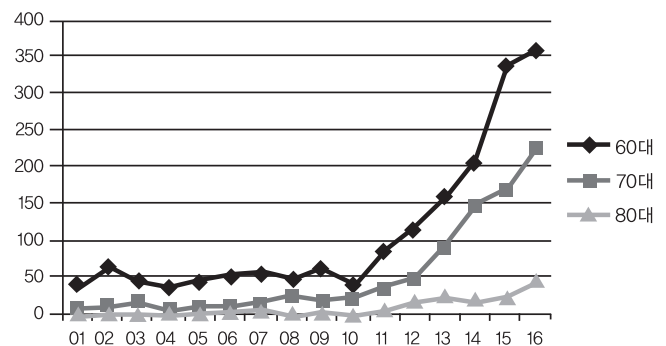


80대 남성의 이혼사유

연도별 연령별 여성 이혼상담 건수



연도별 연령별 남성 이혼상담 건수



● 7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70대 여성)

남편은 30년 전 혼외자식을 낳는 등 속을 썩였고 폭언과 의처증도 심하였다. 그래도 이혼은 엄두가 안 나 참고 살았다. 그런데 어제 또 나를 의심하며 때려서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아직 처벌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나는 몇 년 전까지도 도우미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집은 남편 앞으로 되어 있다. 내 몫의 재산을 분할받고 이혼하고 싶다.

● 8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80대 여성)

남편이 매우 변덕이 심하고 독선적이어서 평생동안 나를 무시해왔다. 재산도 모두 남편 앞으로 해두었다. 남편이 계속 일을 해왔고, 나는 전업주부였다. 그동안 껍뻑 참아왔는데 나이 80이 넘어서도 여전히 남편이 아들 며느리 앞에서 나를 무시하고 또 자기 앞으로만 재산을 해두게 너무 화가 난다. 재산을 나누어 받고 따로 살고 싶은데 방법은?

● 8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80대 남성)

자녀가 다섯 명인데 애들이 전부 아내만 싸고 돌고 나는 몰라라 한다. 나는 현재 통장에 백만원정도밖에 없다. 아내는 40대 중반부터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닌 과오는 있다. 근래에는 나 혼자 할 일이 없어 동네 경로당에 다니는데 너무 지루하고 심심해 동네 아줌마들과 몇마디 나눴더니 사람들 보는데서 그 여자와 살라며 포악을 부려댔다. 자존심도 상하고 이제는 너무 지겨워 이혼하고 싶다.

이혼상담 사유 분석

여성의 이혼상담 사유(총 5,009건)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폭언, 생활무능력, 빚, 배우자의 이혼강요 등이 우선 순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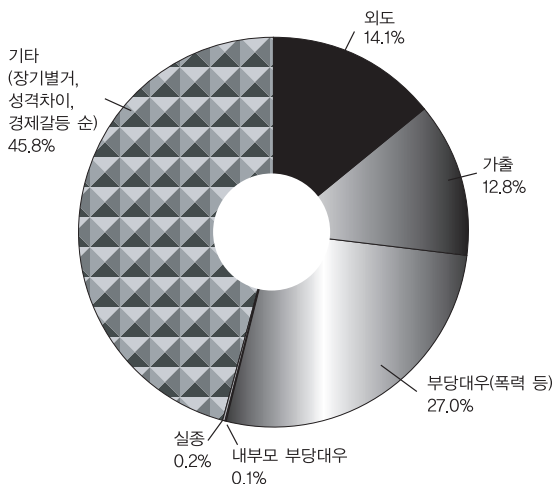
(민법 제840조 6호)(45.8%, 2,296건)

2위 '남편의 폭력' (3호)(27.0%, 1,35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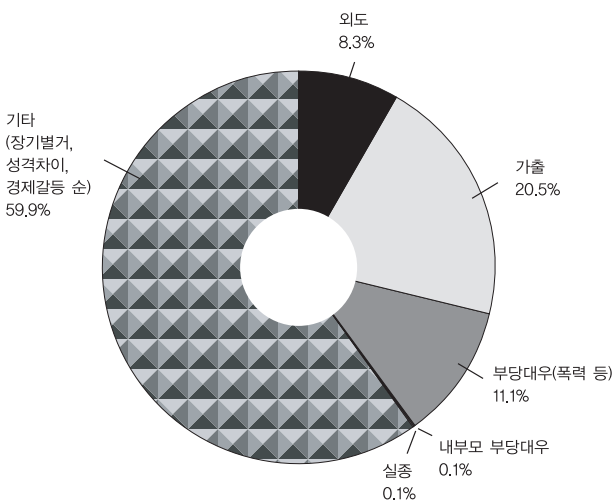
3위 '남편의 외도' (1호)(14.1%, 707건)

남성의 이혼상담 사유(총 1,960건)

-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배우자의 이혼강요,
거짓말, 애정상실, 폭언 등이 우선 순위임)
(6호)(59.9%, 1,175건)
- 2위 '아내의 가출' (2호)(20.5%, 402건)
- 3위 '아내의 폭력' (3호)(11.1%, 217건)



여성의 이혼사유



남성의 이혼사유

남녀 모두 1순위를 차지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이혼사유와 관련하여 남녀 모두 1순위로 나타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6호사유(총 2,296건) 중 '장기별거'로 인한 상담이 23.2%(53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12.9%(296건), '경제갈등' 8.9%(203건), '폭언' 4.8%(111건), '생활무능력' 4.6%(106건), '빚' 3.7%(84건), '배우자의 이혼강요' 3.5%(8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는 6호사유(총 1,175건) 중 '장기별거'로 인한 상담이 30.6%(36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17.2%(202건), '경제갈등' 6.1%(72건), '배우자의 이혼강요' 4.3%(50건), '거짓말' · '애정상실' 각 1.7%(20건), '폭언' 1.5%(18건)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6호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가 가장 많아

남녀 모두 6호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가 가장 많았다(여성 23.2%, 남성 30.6%). 그런데 상담을 통해 보면, 다양한 원인으로 서로 다툰 후 별거가 시작되다가 다툼의 원인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장기별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장기별거의 경우 대부분 다른 원인과 병합이 되어 나타났는데 여성은 남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오면서, 남성은 경제갈등이나 성격차이 등으로 아내가 가출하면서 장기별거에 이르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자녀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법적인 부부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다가 자녀의 대학 진학이나 결혼 후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서면 비로소 이혼을 하고자 상담소를 찾았다.

● 장기별거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70대 남성)

15년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다 내게 발각이 되었다. 그 일로 아내와 사이가 나빠져 따로 살기 시작했다. 아내와 그런 일이 있은 후 딸들을 더 단속하게 되었고 딸들과도 사이가 나빠졌다. 그래도 가정을 켤 수 없었기에 그냥 각자 다른 이성을 만나며 지냈다. 그런데 딸들이 모두 결혼하자 아내가 나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해왔다. 나도 이제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을 해 줄 수는 없다.

● 장기별거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40대 여성)

남편은 술을 자주 마시는데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한다. 어려서부터 폭력에 노출되어 아이도 우울증이 심하다. 남편의 폭력을 견디기 힘들어 8년 전 아이 치료를 핑계로 아이와 둘이서만 서울로 올라왔다. 이혼하고 싶어도 아이가 그동안 특수학교에 다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남편 월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런 생활에 지쳐 나도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제 아이도 좀 컸으니 내 몫의 재산을 받고 이혼하고 싶다.

남녀 모두 경제갈등을 이혼사유로 꼽은 경우 많아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경제갈등을 이혼사유로 꼽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여성 8.9%, 남성 6.1%). 상담을 통해 보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해 전반적으로 가계수입은 더 증가했어도 상대적으로 소비할 곳이 더 늘어남에 따라 배우자와 지출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어려워진 경제 여건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하거나 사업에 실패한 경우 빚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

는 등 배우자와 경제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이혼까지 고려하게 되었다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30대 남성)

아내와 생활비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 경제관념이 달라서 다툼이 끊이지 않았는데 결혼 전 아내는 여유있게 살아왔고 나는 그렇지 못했다. 내가 볼 때 아내는 욕아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사용하였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면서 시댁에는 전혀 신경을 안 썼고, 어느 때부터인가는 아예 시댁에 가지도 않았다. 부부상담을 받으면서 돈 문제로 다투는 게 힘이 들어 모든 재정 관리를 아내에게 맡겨버렸다. 그런데 그러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혼하고자 한다.

● 경제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50대 여성)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다. 결혼 기간 내내 남편이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생활비를 자신의 1개 카드로만 결제하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카드 한도액을 더욱 낮추었고 지출내역에 대해 일일이 확인한 후 자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면 소리를 질러 내게 굴욕감을 주었다. 경제적으로 부담한 대우와 남편의 태도에 비참함을 느껴 이제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남녀 모두 정신병, 주벽을 이혼사유로 꼽은 경우 많아져

2015년과 비교해 볼 때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정신병'과 '주벽'을 이유로 이혼상담을 해온 비율이 증가하였다 [(정신병, 여성 0.8%→1.0%, 남성 0.8%→1.1%), (주벽, 여

성 0.8%→1.7%, 남성 0.2%→0.4%]. 남녀 모두 배우자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등에서 야기되는 여러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해 심각한 우울증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이들 배우자 중 상당수는 음주 문제도 있었는데 치료를 거부하고 폭언이나 기물파손 등을 일삼아 자녀 특히 미성년자녀의 심리적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신병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40대 남성)

아내에게 분노조절장애가 있다. 아내는 자살 시도를 해서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 결혼생활하면서 너무 힘이 들었기에 아내뿐만 아니라 나도 같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 아내가 내게 이혼 요구를 해서 내가 동의하자 내 마음이 변했다며 나를 더 괴롭히고 있으며, 내게 우울증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제는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 더 이상은 아내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

● 정신병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50대 여성)

남편은 20년 이상 편집증과 조울증을 앓고 있다. 최근에는 나의 행동을 모두 의심하고 때릴 듯 위협하곤 한다.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못 견뎌서 휴직도 여러 번 하였고 지금도 휴직 중이다. 나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편 때문에 일도 할 수 없을 지경이다.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해서 이혼하고 내 몫의 재산을 분할받고 싶다.

남녀 모두 대화단절,
애정상실을 이혼사유로 꼽은 경우 많아져

2015년과 비교해 볼 때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대화단

절'과 '애정상실'을 이유로 이혼상담을 해온 비율이 증가하였다(대화단절, 여성 0.2%→0.6%, 남성 0.2%→0.6%), (애정상실, 여성 0.8%→1.5%, 남성 0.4%→1.7%]. 과거에는 외도나 가출, 폭력과 같이 뚜렷하고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결심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근래 들어서는 대화단절, 애정상실과 같이 정서적으로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선 경우에도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소를 방문하는 이들이 늘었다. 이는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남은 생애를 애정 없고 말이 안 통하는 배우자와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애정상실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30대 남성)

아내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밖으로 돌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서로 멀어졌다. 내 월급을 비롯해 모든 재산을 아내가 관리하는데 아내는 본인의 월급이 얼마인지조차 내게 알려주지 않는다. 밥도 차려서 방으로 가지고 가서 먹는 등 같이 먹지 않는다. 아내가 예전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라 애정과 신뢰가 사라졌다. 1년이 넘었는데도 나아지지 않으니 이혼 생각이 든다.

● 애정상실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50대 여성)

남편이 10년 전쯤 외도를 하였다. 내가 그 사실을 알자 남편이 그 여자와의 관계를 바로 정리하였다. 그런데 그 후부터는 남편에게 애정이 생기지 않는다. 서로 각방을 쓰기로 합의하고 5년째 각방을 쓰고 있다. 남편이 별거하는 것처럼 살자고 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 서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한 지도 꽤 오래되었다. 이렇게 사는 것도 지쳐 이제는 이혼하고 싶다.

6호사유 중 비율 증가 항목(2015년 →2016년)

여성			남성		
사유	2015년(%)	2016년(%)	사유	2015년(%)	2016년(%)
경제갈등	8.6	8.9	거짓말	0.6	1.7
불성실한 생활	1.1	1.5	경제갈등	4.6	6.1
사치, 낭비, 허영	0.0	0.2	빚	1.0	1.1
빚	2.9	3.7	성적갈등	0.4	0.7
전과, 복역	0.6	1.7	불임	—	0.1
정신병	0.8	1.0	정신병	0.8	1.1
주벽	0.8	1.7	주벽	0.2	0.4
무시, 모욕	1.0	1.5	알콜중독	0.6	1.0
자녀학대	0.7	1.0	기물파손	—	0.1
찾은 외박	0.3	0.4	찾은 외박	0.1	0.4
장기별거	18.5	23.2	장기별거	22.8	30.6
애정상실	0.8	1.5	애정상실	0.4	1.7
대화단절	0.2	0.6	대화단절	0.2	0.6
전혼자녀와의 갈등	0.2	0.3	처가와외의 갈등	0.2	0.6
인터넷 관련	0.2	0.3	고부갈등	—	0.2
			자녀양육갈등	0.1	0.2

* 진한 글씨는 남녀 모두 증가한 항목임

김진영 상담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

법률상담

가사, 민사, 형사, 파산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접, 서신 및 전화·지상·순회·인터넷·출장·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등 다양한 상담창구가 개설되어 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상담도 매주 월요일마다 있다.

소송구조

상담결과 소송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소에서는 무료 소송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소송구조는 상담소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그리고 자원봉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백인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가정폭력피해여성,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가사소송 전반은 물론 필요한 경우 민사, 형사 사건까지 포괄하고 있다.

화해조정과 소장작성

분쟁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으로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화해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서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소송 관련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다문화가정의 법률구조를 위하여 외국변호사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영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 무료 지원

개인신용불량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등의 법적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출장상담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무료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부부치료

김 병 후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I. 들어가는 말

오늘은 올 해의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강의들을 조금씩 적용하면서, 전체적으로 부부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려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부 상담이 시작된 것은 다른 분야에 비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과 연관한 정신과 개인치료 부터 시작해, 소아정신 분야가 대두되었고, 그 다음으로 부모와 자식에 대한 치료 즉 가족 상담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직전이 되어서야 부부치료 분야가 부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족치료는 60,70년대에 시작되는 반면, 개인적으로 가족치료보다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부치료는 정신의학적 치료 중 후반부에야 등장합니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여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아주 작은 다툼조차도 당사자인 부모 뿐 아니라 자녀들도 정신적 상처를 주게 됩니다. 부모의 다툼은 아이에게 불안감을 심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다툼으로 마음이 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품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아이들은 부모의 불화가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있을 때마다 해결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결과는 늘 부정적인 다툼의 연속이라면 아이는 자신의 기대는 늘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절망적 기대를 갖게 됩니다. 부부갈등 속에 있어서 자녀의 이야기는 다툼으로 불안정한 부모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주장은 쉽게 묵살되게 됩니다. 아이는 점차 말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며, 자기주장과 자존감이 하락합니다. 이는 아이의 정상적

* 2016년 본소의 무료공개강좌인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는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원장의 강의로 2월부터 12월까지 (8월 휴강) 10강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강좌는 2017년에도 계속된다.

인 발달을 저해하고, 자녀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만약, 부부 치료를 통해 이혼을 방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해당 가족들의 정신세계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부싸움은 매우 격렬합니다.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 서로에게 부정적인 평가가 전달되면, 타인으로부터 받는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게다가 부부는 합법적으로 헤어질 수 있는 장치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제와 부모, 자식 관계는 불화가 생겨도 법적으로 헤어질 수 없지만, 부부에게는 이혼이라는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구성원 모두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받음과 동시에 재산상의 피해도 큼니다. 이러한 상황을 교정할 수 있는 것이 부부치료입니다. 부부치료는 신체적인 치료로 비유한다면 수술과 유사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하면 헤어질 부부가 갈등의 환부를 도려내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돌아옵니다. 정신과 영역의 어떤 치료보다 그 결과가 명확하고 뚜렷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상담을 신청하는 부부는 다툼을 예방하는 시점이 아니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이혼 직전의 부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직 인식이 되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일 갈등의 초기에 시행된다면 더 많은 부부들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II. 진단 및 분석 단계

상담을 신청하는 부부들은 자신의 억울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타인에게 속 시원히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부 개개인의 삶을 주변인들에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말한다 하더라도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관점에서 충분히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부부가 진술해야 하는 각자의 이야기를 기술하는 전문

가는, 해석이 가미되지 않은 부부 각자가 느끼고 있는 그대로의 진술을 기록해야 합니다.

본인의 관점에서 배우자는 어떤지,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배우자에게서 받은 상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그의 관점에서 진술하도록 합니다. 그 래야 당사자도 마음이 시원해지지만 동시에 문제가 작동 중인 상태의 각자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하여 마음의 환기(ventilation)를 시키는 것은 정신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나오게 하여 마음속 응어리를 배출시켜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담의 첫 단계는, 아프다고 말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듣고 기술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지난 강의에서 언급했었던, ‘내용으로서의 자기’, ‘과정으로서의 자기’, ‘맥락으로서의 자기’ 중 ‘내용으로서의 자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기에 초기에는 이를 분별하기 위해 진술의 윤곽이 잡힐 때까지는 충분히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배우자 상

우리의 뇌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특정 이미지로 만들어 기억합니다. 배우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을 토대로 배우자를 본인의 관점에서 규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용으로서의 타인’입니다. 그 상은 과거의 배우자이고 외형적으로 내가 행동을 보고 규정한 것(배우자에게 확인하지 않고)임에도 우리는 그것이 배우자라고 단정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아주 오래전 이성과 외도를 한 적이 있고 평소에도 배우자가 이성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에게 배우자는 늘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라고 규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배우자에 대한 ‘상(像, image)’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배우자의 모습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번 강의 때 언급했던 전이 감정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집사람은 꼭 우리 아버지와 똑같아요. 강압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합니다.”라고 이야기

하며, ‘말투가 비슷하거든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이미지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느꼈던 어떤 행동 양상을 배우자가 한다고 배우자의 성격 전체를 아버지와 유사하게 전이 시켜 만들어진 이미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몇 가지 단서로 단정 짓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덧붙여지면서, ‘배우자 상’은 실제 배우자와는 다른 상이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부갈등 속에 감정적으로 고양된 상태에서 서로에 관한 부정적 상이 겹쳐지면, 극단적인 말이 오가게 되고 괴물 같은 배우자의 상이 만들어져 그것이 내면에 내재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말이 통하지 않고 자신의 아픔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사람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자기상

반면에 ‘자기상’은 실제 자신보다 좋은 모습일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은 정당하고, 양심적이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이기적이며 범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는 본능적인 분노를 가집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정당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행동은 다릅니다. 마음으로는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는 자기 편의를 위해 타인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하는 것도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면담에서 자신을 어떻게 기술하는 지, 그 ‘상’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곡되고 잘못된 상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유는, 배우자와의 충돌을 본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관적인 관점에 빠져 사회적 인간으로써의 자신만 인식하는지, 인간으로써의 한계인 개인적 관점의 자신의 행동의 제한 점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3. 과거 부부의 관계

그리고 다음으로는, 배우자를 사랑하게 된 이유를 파악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주는 점이 좋았다.’, ‘성실한 점이 좋았다.’,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서 좋았다.’ 등과 같은 이유는, 그 사람이 가장 받고 싶었던 사랑의 형태였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형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들어 지는 사랑을 보완하거나 받아 보지 못한 사랑이어서 본인이 갈구 했던 사랑일 수 있습니다. 부부 상담을 하다보면 부부는 어떻게 그런 조합으로 만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처음에 경험했던 이 부부 사이의 원형인 그 사랑이 다시 작동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에,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사이에서 갈등이 만들어 지는 과정을 알기 위해 갈등의 파악 또한 중요합니다. 상담실을 찾을 때의 부부갈등은 원형의 갈등에서 벗어나 갈등의 결과, 즉 싸움의 결과로 만들어진 극단적 공격과 비난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인 쉽게 결별에 대한 요구, 폭력, 무시 회피 등의 행동 등은 갈등이 만들어진 배경과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갈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원형을 알아내야 합니다. 갈등의 주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갈등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땠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갈등이 반복되는 지도 파악합니다. 대체적으로 비슷한 문제가 교정되지 않고 반복되어 발생하는 것이 부부싸움의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4. 부모와의 관계

애착관계는 인간관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아이는 출생 후 타자와 자신의 관계를 부모를 통해 처음 인식합니다. 부모가 제공하는 안락함, 방치 상태, 의존도 등을 아이가 매 순간마다 판단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부모의 성향을 인지하게 되고, 부모가 제공하는 애정과 안락함에 따라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평가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부모

와의 관계를 토대로, 인간에 대한 판단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감정과 행복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만약, 애착관계에 문제가 있어 사람을 불편해하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함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이어집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모에 대한 상'은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에, 부부 각자가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자신의 부모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아내 측에서는 시어머니를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남편은 어머니의 희생을 기억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보는 부모에 대한 평가도 객관적으로 부부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배우자에 의해 재현될 때 그 상처는 배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자신이 왜 그렇게 상처를 받는지 모르고 있다가 상담을 통해 부모와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생각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의 문제, 사랑, 배우자의 장점, 갈등의 이유와 전개, 자기상, 배우자상, 배우자 부모의 상, 본인 부모의 상 등을 세세하게 기술하면,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5. 심리검사

심리검사를 시행하면 당사자는 인지하고 있지 않은 무의식적 욕구를 찾아 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 하는지, 부정하고 회피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지할 수 있어야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도 알지 못하는데 상대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감정은 인간관계의 결과물일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인지한다는 것은 인간관계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배우자의 감정 상태도 파악하는데 필요합니다. 또 감정에 압도당하는지, 감

정의 통로를 차단하고 이성으로만 즉 머리로만 판단하는지의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자율성과 연대감 그리고 초월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는지, 다른 사람과의 연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도 파악합니다. 인내심이 어떤지, 호기심과 위험회피성향은 어느 정도 인지도 파악이 됩니다. 가부장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전통적인 여성관을 갖고 있는지, 창조성인 마음을 갖고 있는지 등도 파악이 됩니다.

자신의 욕구가 어느 정도인지, 그 욕구를 어느 정도 실현하고 살아 왔는지, 내면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상, 어머니에 대한 상, 사람에 대해 어떤 예측을 하는지 등도 알 수 있고, 가정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는지, 가족들과의 교류는 잘 하여 왔는지 등의 상담에서는 파악되기 어렵던 자료들을 단기간의 검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기에 필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잠정적인 부부관계의 진단

위와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부부 상담을 시작하기 전 부부의 문제를 잠정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상담가는 부부를 만나기 전 이미 부부에 대한 모든 자료를 아는 상태에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먼저 부부 갈등과 충돌에 관한 핵심을 파악한 내용이 실제 부부와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면서 상담을 진행할 것입니다. 부부는 대부분의 진술을 이미 한 상태여서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므로 이제부터는 상담에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과감히 제외하며 핵심적인 내용으로 부부의 역동적 관계를 규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호소하는 내용은 앞서 기술한 대로 대부분 갈등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배우자상은 '괴물' 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로 뒤덮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극단적인 부정적 이미지 속에 갇혀 있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원형의 갈등 원인을 치료자는 찾아내어야 합니다. 배우자를 공격하는 사람으로써의 기술에서 무엇이 결핍되어 아픔을 겪었나를 찾아내는 것이 잠정적인 진단을 내리기 위

한 첫 단추입니다.

부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강압적인 남편은 내면에는 자신 없는 남성성을 부인하기 위해 과도하게 자신을 내세우는 남자일 수 있고, 신경질 내고 짜증만 내는 부인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메마른 여성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상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추정이 되면, 원 가족과의 관계와 심리검사 등을 통해 그렇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뒤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부부의 갈등이 만들어진 전 과정을 이리저리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에 대한 잠정적인 진단이 명확히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상담이 진행된다면, 부부 초진에서 나와야 하는 내용이 반복이 되면서 부부는 상담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잠정적인 진단은 보통 부부 상담이 진행되기 직전에 완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Ⅲ. 관계과정 분석단계

이제는 자료들이 통합되어 잠정적 진단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부부간의 갈등 관계는 파악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부부 치료자가 개입하는 ‘관계 과정 분석 단계’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부부 각자가 본인의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다면, 이 단계부터는 치료사가 개입하여 부부 서로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 왔는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갈등상황 속에서, 실제로 두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치료사가 서로를 소통시키며 개입하는 것입니다. 처음 치료가 시작되는 단계의 부부 대부분은, “우리 남편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아내는 이렇게 사람을 괴롭힙니다.”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자신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고통을 먼저 이해 받으려 하는 행동이지만 상대에게는 공격이 계속되는 셈입니다. 이때 치료사는 각자에게 공감을 하면서도, 공격이지만 실제로는 아픔이라는 설명과 함께 공격의 이면에 있는 아픔을 들어내어 부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객관화 과정만으로도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하나 살펴봅시다. 두 사람 다 사회적 능력이 있고 상대를 편하게 대해주고 부인이 어른들을 좋아해 시댁 어른들과 결혼 전부터 스스로없이 대하고, 그런 모습의 아내를 남편이 좋아하여 결혼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직 전 부인이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 다단계를 하다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능력으로는 그 빚을 청산하는 것이 어려운 일 아니었습니다. 빚이 있는 것을 알고 남편의 집에서는 걱정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시누이가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러곤 남편이 막내 아들임에도 며느리가 본가에 들어와 시댁어른들과 함께 살기를 요구했습니다. 부인은 상처를 받았지만 이미 시누이가 빚을 청산했기에 이를 받아 들였습니다. 결혼 전 빚을 갚아 준 시누이는 남편에게 며느리가 다시는 빚을 지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부인은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임신을 하고 부부는 일상으로 돌아가 무리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요구를 할 줄 모르는 부인이 육아에 지치게 되고,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남편에게 짜증을 내면서 부부 갈등은 시작되었습니다.

부인은 그 일이 있었음에도 시댁에 소홀히 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부인이 육아로 짜증을 내자, 빚도 지던 여자이면서 성격도 좋지 않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아내가 본색을 드러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도 도와주는데 육아가 힘들다고 하는 부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빚을 진 부인이 큰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자신이 빚을 갚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남편도 시댁도 자신을 문제가 있는 여자로 대하니 두 사람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사례의 경우, 부부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객관화 과정을 거치면서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남편이 객관화 과정을 통하여 아내가 육아에 남편의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이 여성으로서의 일반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수용하게 되고, 부인의 빚이 악성부채가 아니라 부인이 처리할 수 있지만, 과정상의 문제(즉 친구가 빚의 원인을 제공하였기

에, 친구가 갇게하기 위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문제는 곧 회복되었습니다. 치료자가 개입을 많이 하지 않아도 갈등 상황에서 서로 공격과 오해에 쌓여 있던 부부가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만 부여 돼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부는 이렇게 간단히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치료자는 잠정적인 진단이라는 기준을 갖고, 실제 부부가 어떤지를 추적하면서, 서로의 아픔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치료자의 진단이 아니라, 부부가 진실로 치료자의 해석에 동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부 중 어느 누구도 치료자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해석은 버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진실에 근거하여 재해석이 내려지고 그 것이 다시 부부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잠정적인 진단은 부부에 대한 역동적 진단이 되는 것이고, 이후의 상담은 이에 의해 부부의 아픔이 서로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는 방향으로 상담은 진행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부부는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로 생활에서의 관계 행동이 긍정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은 지속됩니다.

IV. 행동교정단계

관계의 재구성 단계에서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진 후에는, 부부의 생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이뤄져 서로에 대한 마음이 호전되면 상담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자연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동 교정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부정적인 문제 행동과 획득되어야 할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부부와 같이 상의하여 그 행동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행동은 소멸되고 긍정적인 행동이 획득되도록 상담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 행동이 교정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예를 들어 소리를 지르던 남편이 소리를 지르지 않게 되고, 긍정적인 행동이 획득되어 남편에게 자신의

주장을 하지 못했던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게 되면, 상담은 종결됩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남편과 착한 아내라는 사랑의 원형은 되찾으면서, 행동 양상은 변하게끔 유도하여 건강한 형태의 부부관계 행동양상에 대한 것이 습득되고 실제 생활에서 지속될 수 있다면, 치료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치료되기까지의 부부상담 횟수는 부부마다 차이가 큼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초기 갈등상태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것이 방문 횟수도 줄어든다고 효과는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자녀 폭행 후 상담 통해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자녀 및 배우자와의 관계까지 회복 단계에 이르기도

사건번호 2015버3***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2회,
교육강좌 2회, 집단상담 8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4회 등 총 20회 실시

상담기간

2016. 3. 4. ~ 2016. 8. 31.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23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2녀 1남(24세, 21세, 17세)이 있다. 행위자는 평소 피해자와 성격차이, 잦은 가출, 늦은 귀가 등으로 갈등이 있었다. 2015년 11월 사건당일 밤, 행위자는 피해자가 다른 곳에 방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말다툼 중 피해자의 목을 잡아 목 부위에 찔과상을 입히는 등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행위자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혼을 원하는데 행위자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살고 있고, 행위자가 보호처분을 받은 후 폭력은 재발하지 않았지만 밤이면 음주를 하고 대화하자고

하는 등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성년이 된 두 딸은 아버지와 갈등(특히 경제적 갈등) 속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집을 나가 살자고 조르는 상황이었다.

행위자는 상담을 통하여 부부생활을 점검해보는 기회를 가졌고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자신이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게 되었다.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여행을 같이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도 발견해내고 나중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자와 꼭 같이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였다.

피해자의 이혼 의사가 완강하여 부부는 상담 종결 즈음 차선책으로 별거에 합의하게 되었다. 집을 매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을 절반씩 나누었으며, 성년인 두 딸은 피해자와, 고등학생인 아들은 행위자와 함께 지내기로 하였다. 그리고 행위자는 장차 피해자와의 재결합을 기대하며 대출을 받아 작은 집을 매수하였다.

피해자는 재결합에 회의적이었지만, 행위자가 피해자와 두 딸에게 진심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부부가 별거에 이른 점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부의 합의로 대안을 선택하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행위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어 상담기간 중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고 향후 폭력 재발 가능성도 희박하다.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6회, 전화상담 3회,
교육강좌 1회, 집단상담 8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3회 등 총 21회 실시

상담기간

2016. 3. 18. ~ 2016. 9. 21.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결혼한 지 10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2남(9세, 7세)이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행위자의 외도로 2014년 5월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집을 나갔고, 아이들 양육을 위해 지방에 있던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이혼소송을 취하하면서 부부관계가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갈등이 극심해져서 수차례 폭력을 하며 다툰 적이 있었는데, 행위자 몰래 피해자가 집을 구입한 일, 행위자 몰래 피해자가 많은 비용을 들여 치아교정을 한 일, 신혼 때 처제를 몇 년 간 데리고 있었는데 대학졸업하고 함께 살던 남동생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내보낸 일 등으로 다툼이 계속되면서 행위자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행위자는 2015년 9월 사건당일 오전, 피해자가 아무런 상의 없이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매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고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행위자는 결혼 전에는 피해자가 비교적 순종적으로 자신의 의견에 맞추어주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결혼했는데, 결혼 후 경제권을 쥐고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돈 벌어드주는 기계가 된 느낌이었고 점차 냉담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해체되지 않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알지만 좁혀지지 않는 갈등의 간격으로 인해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

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였고, 부부는 결국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외도를 하면서도 ‘너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는 거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부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 모습에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하였다. 행위자에게는 지옥 같은 결혼생활이었을 수 있지만 행위자의 외도 이전에는 나름 행복했으며, 지금은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이혼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행위자도 막상 이혼하기로 하였으나 시원스럽지 못한 기분이 든다며 10년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것에 다소 상실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상담을 통하여 그동안 일에 치우쳐 균형적인 삶을 살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힘들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이혼 후에는 일 뿐만 아니라 문화생활, 여행 등을 즐기며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싶다고 하였다. 실제로 상담 종결시점에 행위자는 아버지와 함께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도자기 공예를 배우러 다니는 등 이혼 후의 삶을 모색할 수 있었다.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2회, 집단상담 8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3회,
부부캠프 1회 등 총 21회 실시

상담기간

2016. 3. 21. ~ 2016. 9. 26.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결혼한 지 16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2녀 1남(15세, 12세, 7세)이 있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2년 전부터 시가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조차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상담진행

행위자(아버지)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2회,
교육강좌 1회, 부모집단상담 5회
피해자(아들) 자녀집단상담 2회
행위자의 아내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2회,
가정폭력피해여성 자조모임 1회 등
총 17회 실시

상담기간

2016. 6. 3. ~ 2016. 10. 14.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부자사이이다. 행위자는 2016년 1월 사건당일 밤, 손톱깍이를 찾는 물음에 식사 중인 피해자가 모른 척 하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탁을 엎어버리면서 식탁의자를 내리쳐 부서진 파편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계속 대들자 거실바닥에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수회 쪼은 후,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학습용 지구본을 머리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식탁의자를 부수는 등 재물손괴를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행위자는 결혼한 지 20년 되었으며 2남을 두었는데 피해자는 맏아들이다. 행위자는 결혼 후 건설 현장 업무를 하느라 혼자 지방생활을 많이 하면서 자녀들 교육에 무심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행위자는 자기중심적인 성격으로 결혼 후 자기 위주로 살아 힘든 것이 없었는데, 아내는 행위자의 의사를 따르면서도 짜증을 내고 잔소리를 했으며 40세를 넘기면서부터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시어머니 앞에서도 적나라하게 감정을 표출하여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고 하였다. 게다가 2015년에 행위자가 과거 직장시절 알았던 여성과 7~8개월 동안 외도한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된 후 자주 그 일을 거론하면서 부부는 반복적으로 다투어왔다.

행위자는 아내와의 갈등원인으로 아내가 열심히 살지 않

피해자는 결혼 전부터 받은 시어머니로부터의 인격적인 모욕과 무시, 그리고 행위자가 시어머니와 시누이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마마보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행위자는 2016년 1월 사건당일 오후, 막내아들을 데리고 본가에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이를 반대하며 혼자 다녀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행위자는 돈을 잘 버는 직업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공무원을 가장 무시하는데, 자신이 무시하는 직업군인 판사가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며 판결을 내리고, 상담소에서는 상담위원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상담하고 조언하는 것을 무척 불편하게 생각하여 무시하면서도 저항감이 심하였다. 그러면서도 법적으로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것이 싫기 때문에 앞으로는 갈등상황이 생기면 피해자를 피할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행위자는 피해자와 거의 대화를 하고 있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에 문자로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행위자의 태도는 상담 현장에도 반영되어 집단상담에서도 다소 방관적인 입장을 취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집단상담 마지막 회기에서는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른 것인데 아내가 틀리다고 생각했었다. 그동안 시가와 나 사이에서 아내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아이들에게는 참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면서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자녀들이 아내와 한 편이 되어서 자신의 편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슬프고 외롭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하는 가라는 데까지는 연결시키지 못하였다.

행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적 제재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식하여 향후 폭력재발 가능성은 희박하며, 원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분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지도 않는 점과 피해자 양육 방식 등 두 가지를 꼽았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중학생 때 책에 ‘아버지 죽이는 법 4가지’를 적은 것을 보았고, 욕과 모욕 등 피해자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그동안 피해자에게 훈육 명분으로 폭력을 하였지만 이번에는 아예 처벌을 각오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였으며,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폭력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신은 차마 피해자를 고소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와 함께 상담을 받을 생각도 없고, 피해자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매우 냉담한 마음이었다. 피해자의 문제가 아내의 양육방식에 기인한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하였지만 아내와 이혼할 의사는 없었다.

아내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갈등 관계에서 근본적인 잘못은 행위자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고 피해자를 무시하였고, 다른 아이와 비교하면 욕을 하여 피해자가 욕을 배웠고,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했다. 행위자가 젊어서부터 외도를 하였지만 자신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혼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아내가 아들인 피해자의 상담을 위하여 피해자를 자녀집단상담에 참여하도록 하였지만 피해자는 자신이 왜 상담을 받아야 하느냐며 2회 참석 후 참여하지 않았다.

다행히 행위자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행위자는 부모집단 상담에 참여하여 다른 가정들의 부모자녀갈등 사례를 접하면서 자신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였고, 이 모든 갈등의 책임은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수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잘못하였다’고 사과하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묵은 감정을 표출하는 기회가 있었다. 이후 행위자는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도 행위자에게 대들지 않는 변화가 있었다. 아내는 행위자의 노력을 인정하였고 행위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였다. 상담초기 행위자와 피해자 및 아내와의 관계는 매우 답답하고 절망적이었으나 행위자의 의식 전환과 태도 변화로 폭력이 재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및 아내와의 관계 모두 개선되었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고맙습니다

2017년 2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인숙, 심무순, 한정희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종협, 김영주, 김지후, 김태주, 박수열, 박은정, 박효선, 윤원섭, 이혜민, 전현정, 형장우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미옥, 김소이, 방선영, 이승주, 장주용, 장철진, 천정환 변호사 님, 이진철 재판연구관 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배선경, 임채룡 변호사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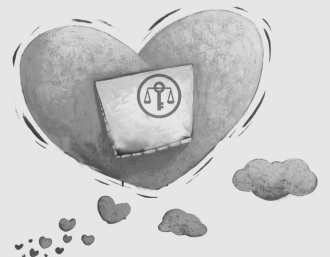
• 학생 자원봉사

김수민, 남보라, 이민주, 정태정 님

후 원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천정환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총무부

가정위탁부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선임심판 사건 관련 보고서**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계 -

우리 아동복지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가정에 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가정위탁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위탁은 위탁부모와 아동 사이에 아무런 친족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양과 구별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위탁부모와 아동 사이에 친족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탁부모는 미성년자인 위탁아동을 대리하여 법률적 사무를 처리해 줄 권한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의 명의로 된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개설함에 있어 친권자인 친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위탁부모가 이러한 사무를 처리해 줄 수 없었으며, 위탁아동이 긴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할 때에도 위탁부모가 보호자로서 동의서에 서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이러한 위탁부모와 위탁아동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의 법적대리인인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법률적 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아동의 친부모가 이혼하면서 아버지가 아

동의 친권자로 지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친부는 이혼 후 위탁부에게 아동의 양육을 맡겼으며 위탁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가정위탁보호결정을 받아 수년간 아동을 양육하였습니다. 친모는 이혼 후 아동과 일체의 연락이나 만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을 아동으로 하여 친부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위탁부를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여 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수반하여 위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선임 사건에서 미성년자인 아동의 특별대리인으로 위탁부를 선임하여 달라는 특별대리인선임신청도 하였습니다. 심문기일에 친부가 출석하여 자신의 친권이 상실되고 위탁부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앞으로도 아동을 직접 키울 의사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위탁부를 아동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친부의 아동에 대한 친권을 상실시키고 위탁부를 아동의 미성년자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부가 아동의 법률적 대리인으로 모든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있었던 위탁가정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김민선 변호사

** 인터넷 상담을 대신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계한 소송구조 사건 관련 보고를 실는다.



정희진 지음,
교양인, 2015

정희진처럼 읽기

내 몸이 한 권의 책을 통과할 때

토요일 아침은 느긋하게 신문을 읽을 수 있어 좋다. 특히 한겨레신문 2면의 길지 않은 칼럼 ‘정희진의 어떤 메모’가 토요일에 연재되어 기쁘다. 좀 더 천천히 한 줄 한 줄 음미하며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칼럼을 통해 많은 책을 읽었고, 읽었던 책들을 혹은 한 편의 시를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칼럼을 손질해서 엮은 이 책 『정희진처럼 읽기』는 그래서 참 각별하다.

지은이는 이 책의 ‘에필로그’에서 말한다. “내가 생각하는 독후감의 의미는 단어 그 자체에 있다. 독후감(讀後感), 말 그대로 읽은 후의 느낌과 생각과 감상이다. 책을 읽기 전후 변화한 나에 대해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없다면 독후감도 없다. 독서는 몸이 책을 통과하는 것이다. …… 터널이나 숲속, 지옥과 천국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딘가를 거친 후에 나는 변화할 수밖에 없다. 독후감은 그 변화 전후에 대한 자기 서사이다. 변화의 요인, 변화의 의미, 변화의 결과 …… 그러니 독후의 감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부제인 ‘내 몸이 한 권의 책을 통과할 때’는 참으로 적절해 보인다. 1장 고통, 2장 주변과 중심, 3장 권력, 4장 안다는 것, 5장 삶과 죽음으로 나누어 지은이가 읽은 책이 그의 몸을 통과하여 어떠한 생각과 의미를 얻게 되었는지 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책을 꼭 읽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문장 하나하나에 지은이의 치

열함이 느껴져서 ‘읽는 자체’가 즐거움을 준다.

스무 살에 읽었던 프란츠 파농의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을 다시 생각하면서 민족해방을 뛰어넘는 파농의 탈식민주의, 백인과 동일시하는 흑인, 폭력의 정당성 등을 다시 곱씹었고, 마중기 시인의 시 ‘전화’를 다시 읽었다.

책을 고르고 읽으면서 애들이 컸고 내가 늙고 있음을 알게 된다. 동화책을 읽으면서 재우던 애들이 이제 나에게 ‘이 책을 읽었나?’ ‘이 책은 꼭 보라’고 이야기한다. 신문에서 칼럼을 감명 깊게 본다고 하자 큰 애가 자기 책꽂이에서 꺼내다 준 책이 이것이어서 다시 생각했다. 나는 늙고 있고 애는 자라고 있구나. 아이가 먼저 본 책을 읽다 보니 구절구절 밑줄 그은 곳이 많았다. 그 구절마다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이었을까 생각해 보는 즐거움도 좋았다.

지은이 정희진은 책날개의 소개에 의하면 ‘평화학·여성학 연구자, 학문 간 경계를 넘나드는 공부와 글쓰기를 지향’하며 ‘사랑받음이 권력, 자기도 취, 당연함이 아닌 사회,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자원이 되지 않는 사회, 중심과 주변의 경계가 불안정한 사회, ‘세련’이 진정으로 ‘우아’가 치열함으로 인식되는 사회를 꿈꾼다’고 한다. 그의 꿈에 동의한다.

이 숙 현 편집부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연수 및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소에서 실습 및 기관연수를 마친 각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실습후기를 요약하여 소개한다.

김 지 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후, 주로 법률상담의 “법률”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법의 각종 법리를 익히기 위해 매진하는 과정에서 실제사례 속 개인은 갑, 을, 병으로 추상화되었고 그 결과 마음으로 무언가를 느끼기보다는 머리로 이해하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법리와 판례의 판시내용이지 그 사례 속 개인이 어떻게 느끼고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2주간 실무수습은 이런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법률상담의 “상담”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2주간의 실무수습이었지만, 전화 상담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접수실과 상담실에서 상담소에 방문한 다양한 내담자들을 접할 수 있었으며, 변호사님들과 상담위원선생님들의 상담을 참관하며 법률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집단 상담을 통해 부부가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도 보았고, 서울가정법원에 출장상담을 나가 다양한 이유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제가 향후 법률가가 되어 마주치게 될 사람들이 교과서 속 무덤덤한 갑, 을, 병이 아니라 법을 잘 알지 못해 곤경에 처해 있는, 그 괴로운 상황으로 인해 절실히 도움을 호소하는 살아 숨 쉬는 주변 사람들이라는 것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유능한 법률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뒤에는 백인변호사단의 일원으로 상담소를 위해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주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는 가족이 우리 사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법률상담소를 찾는 대다수의 의뢰인들은 가사 관련 분쟁을 겪고 있으며, 그것이 ‘가족 간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고통이 보다 크게 와 닿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쟁들이 또한 ‘가족 간의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의뢰인들의 의지를, 저는 이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2주간의 실무수습 기간 동안 ‘가족’이란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어보려 진심 어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에서 오는 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마음의 짐이 더욱 무겁다고 생각하며, 또 이곳에 연락해주시고 방문해주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보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분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때 더욱 더 공감능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거름 삼아, 저는 학교로 돌아가 ‘공감’을 통해 ‘가족’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좋은 법조인이 되고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소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작년 2학기 ‘폭력과 젠더’ 수업에서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알게 되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업무를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실무수습을 지원하였습니다. 비록 아는 것이 많지 않은 상태이고 가족법도 수강하지 않았으나, 교과서와는 다른 실무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왔습니다.

첫날 전화 상담 업무를 시작하며, ‘아, 내가 정말 제대로 찾아왔구나’를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내용의 전화 상담일지 마냥 두렵기만 했고, 상담소로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유하며 상담소의 위치와 찾아오시는 길 위주로 안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상담소 전화번호를 누르고, 일면식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분들에게 공감하기 시작하면서, 상담소 위치 안내 외에도 문의하신 사항을 최대한 함께 고민하고자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족법 상식> 팸플릿 그리고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열심히 참조해가며 대답해드릴 수 있는 영역을 점차 넓혀갔고, 그래도 모르는 것은 상담위원 선생님들께 문의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담소 실무수습의 꽃이라 불리는 ‘상담참관’을 통해 다양한 분들을 만난 것은 예비 법조인으로서 가슴 속에 오래 품을만한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상담소 운영시간 중의 상담참관뿐만 아니라, 야간 상담 그리고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에 참관할 수 있는 것은 흔치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참관은 ‘어떤 사람들일지 궁금하다’는 호기심 반 그리고 ‘내가 공감할만한 이야기가 과연 있을까’ 하는 거리감 반의 태도로 접근하였으나, 상담이 진행되며 가족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수록 행위자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억에 남는 활동에는 가정법원 실습이 있습니다. 가정법원 실습에서는 내담자 분께 직접 이혼소장작성법을 알려드리고, 가사문제와 관련한 각종 서류를 직접 찾아보았는데 이러한 실습은 가족법 관련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유익했습니다. 학교 과정에서는 법률에 대해서만 배울 뿐, 구체적인 실무 절차에 관하여서는 간과하기 십상인데 가정법원 실습으로 실무 절차를 습득하며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몸으로 익힐 수 있었습니다.

2주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상담소의 업무 일부를 체험하며, 한국 가정법률상담소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었고, 이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저의 작은 도움이나마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보며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실무수습을 통해 당장 다음 학기를 준비할 원동력을 얻었고,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며 실무수습을 함께 한 동기들도 얻어갈 수 있는 2주였습니다.

민 준 식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자가 아니라 변호사가 필요해.” 이번 실무수습은 이 한 문장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학부 신학생이었던 시절, 교회 사람들이 “신학자가 아니라 목회자가 필요해.”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는데 당시에는 그 뜻을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직접 실무에 부딪치면서 저 말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대면상담에 참관할 때나 전화상담을 할 때나 사건보다는 사람 자체에 눈길이 많이 가고 그 인생의 굴곡에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아무래도 형편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오셔서 상담하기에 사건은 복잡했지만, 복잡한 법리 구성이 문제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보다는 당장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엉클어진 일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는 일이 더 시급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 현장에서도 어려운 신학 강의보다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신도의 삶에 밀착시켜 나날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보람찬 실무수습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선생님과 변호사님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상·담·소·소·식



2017년도 정기 전기 이사회

본소의 2017년도 정기 전기 이사회가 지난 2월 23일 열렸다.

차명희 이사장, 김춘봉, 박양덕, 곽배희, 조대연, 임재연, 김영옥, 김병후 이사과 한미영, 최문원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이사회는 차명희 이사장의 개회, 전회 회의록 요약 보고, 감사보고,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건으로는 2016년도 사업에 대한 감사보고와 201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이사회에 이어 정기총회가 오는 3월 23일 열릴 예정이다.(관련사진 2면)

2017년도 상반기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제2차 직원재교육 겸해

본소의 2017년도 상반기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위원장 김상용)가 지난 2월 8일 본소 8층 교육실에서 개최되었다.

직원재교육을 겸해 이루어진 이날 회의에는 곽배희 소장을 비롯 본소 직원들과 본소의 가족법개정자문위원인 김상용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미화 변호사(법무법인 남산 대표 변호사), 배인구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차선자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의 의의와 한계,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신탁제도, 연금분할청구권과 '국민연금법'의 개정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관련사진 2면)

본 상담소 한미영 감사, 태국 발명전 그랑프리 수상

(재)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로 회장으로 있는 본소 한미영 감사가 태국정부의 초청으로 '2017 태국 방콕 국제 지식 재산·발명·혁신·기술 전시회'(태국 발명전)에 참석하여 그랑프리를 수상하였다.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방콕 국제무역전시회센터에서 열린 태국 발명전에는 20개국 1400 여점의 발명품이 출품됐으며 한미영 감사를 비롯 (재)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 소속 여성 발명·기업인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금상, 은상, 특별상 등을 수상했다.

교육부, 한부모가정 일일교육 및 김병후 원장의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본소 교육부에서는 2월 21일 한부모 가정을 위한 일일교육을 실시하였다.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 가정의 모자와 강사, 자원봉사자, 관계자 등 총 53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 찾기', '웃음치료-Fun Fun한 생각이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한부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강의 뒤에는 현장질의응답 시간과 각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조언을 듣는 상담 위원들과의 개별상담 시간을 갖고, 소송구조가 필요한 참가자들에게는 상담소에서 법률구조신청안내를 받도록 하였다. 강의를 진행되는 동안에는 유아, 아동을 위한 탁아프로그램도 함께 준비가 되어 참가자들의 참여도를 높였으며, 참가자들은 현재 상황에 맞는 법률과 주거문제를 상담

받을 수 있어 좋았고 특히 친권, 양육권, 양육비이행청구 및 가정법원에 관한 사항과 소송구조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남겼다.

2월 23일에는 김병후 원장(본소 이사, 김병후신경정신과)의 강의로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실시하였다. 2017년 첫 강의의 주제는 “부부갈등과 상처(아픔)”로 올해는 강의시간이 그간의 2시에서 3시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대부터 70대까지 총 56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강의는 부부갈등의 특징과 갈등의 결과로 인한 상처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두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어 하나의 화합점을 찾기까지 많은 갈등을 겪게 되지만 많이 싸우고 잘 해결하는 가운데 답을 찾는 것이 건강한 방법이며, 상처라는 것은 쌍방의 문제로 맨처음 받은 상처보다, 상처에 반응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므로 아픔과 상처를 받은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다음 강의도 기대가 크다며 수강 소감을 남기고 만족을 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동계방학 2기 실무수습

지난 1월 9일부터 20일까지 동계방학 법학전문대학원생 1기 실무수습에 이어, 2월 6일부터 17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생 2기 실무수습이 진행되었다.

2기 실습기간에는 이화여자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모두 4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실습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김지윤, 1학년 이주현 / 주소현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민준식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동국대학교 현장실습

권수희 김세연 김우람 김유빈 손준호 송희원 신지현
안선주 양예지 윤성은 윤여진 이예진 차서진

●이화여대 재학생 직무체험 연수

김예슬 변규연 임세원 최주연

출장법교육

2월 9일 노숙인신용회복교육 및 상담 보현의 집
- 정연이 · 전규선 상담위원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정연이, 박소연 상담위원
김민신, 황현정, 정근정 변호사, 오동준, 권혁채 법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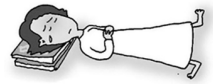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2월 10일 전국가정폭력상담소 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곽배희 소장, 신임 가정법원장과 환담 등

본소 곽배희 소장은 2월 2일 본소의 이혼 전 교육 동영상 제작 심사위원회, 10일에는 제작회의에 참석했다. 14일에는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성백현 신임 가정법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2011년부터 가정법원 1층 민원실에서 성공리에 운영 중인 본소의 출장상담과 관련하여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이 배석했다.



그 여자의 봄



글 | 그림 | 장차현실

봄 햇살은 어찌 저리 화창할까?
겨우내 쌓였던 쓸모없이
불어난 살들이 노폐물처럼
여겨져 버리고 싶다.



세상 만사가 귀찮아
물을 먹고 싶어도
참는다.

너무 멀다.



엄마
갱년기야?



주부 우울증?

바지런 하고
날래던 나는
어디로 간절까?



여보 정신과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 봐~



타!



실컷 푹고 밝아져서
돌아와~



내가 가는 병원엔...



어서 와~



지들이 뭐 알아!!!

내 마음을 척! 하면 알아듣는 친구들...
쏟아 내고 쓰다듬는 최고의 병원이다.

봄나들이
하셔요~



아우~요즘 환자들이
넘쳐나!!!





지·부·소·식

강릉지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가사조정을 총 4회 실시하였다.

구리지부

2월 9일 2017년 총회 및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총6회, 의정부지방법검찰청 형사조정을 총4회 실시하였다. 16일 교문1동, 인창동, 동구동 주민센터에 가정상담지로 홍보를 하였다. 이경숙, 정수경, 김효경, 정이수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대구지부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으로 이혼을 고려중인 일방 혹은 부부를 대상으로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가정법원에서 의뢰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심화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2월 11일, 25일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의무상담제 주말프로그램 부모교육 “협력하는 부모”를 실시하였다. 김중기, 구인호, 이용원, 정익창, 윤준상, 김진원, 서수연, 김인수, 이정민, 조정, 상무균, 이성관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협력사업으로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 총7회, 광주지방법원 총5회 실시하였

다. 성남지원 협의이혼의무상담 총6회, 가사재판상담을 총4회 실시하였다. 2월 6일 상담소 직원 전원이 참석하여 사례회의 8건, 수퍼비전 1건을 실시하였다. 문대근, 민진국, 임재훈, 송지민, 김승구, 김정혜, 박지훈 변호사가 소송구조 및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수원지부

수원지방법원 기관지정사업으로 협의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 양육에 관한 의무면담을 총12회 실시하였다. 2월 2일 수원지방법검찰청에서 이동식 가정폭력상담을 실시하였다. 부설 보라상담원에서 경찰동행 가정폭력피해자 가정방문상담을 실시하였다. 홍성민, 김현수, 이호준, 김현명, 양승철, 임용호, 전태우, 박지훈(성남), 황미옥, 서정식, 박지훈(수원), 최지희, 강은혜, 김소이, 한승일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순천지부

매주 화요일 14시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2월 9일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전주지부

2월 2일, 14일 전주지방법원 가사조정, 협의이혼상담을 실시하였다. 9일 전

주지부 제2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16일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검찰청, 전주시청 등에 가정상담지, 리플렛 등으로 홍보를 하였다. 정아람, 진휘원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제주지부

김홍면, 황인철, 백신옥, 김성훈, 김수진, 최호웅, 조준범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진주지부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윤 변호사가 소송구조 및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창원·마산지부

2월 7일, 21일 창원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15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민태식, 강재현, 전철우, 강은실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청주지부

2월 21일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춘천지부

2월 15일 가정폭력행위자로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행위자, 피해자 부부상담을 실시하였다.

2016년 1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7년 1월 한 달 간 접수·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0,989건으로 본부가 6,474건, 지부가 4,515건이었다.

본부는 6,145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199건·소장 등 서류작성 97건·소송구조 33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4,124건·화해조정 324건·소장 등 서류작성 37건·소송구조 30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145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6년 12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남녀관계(1.0%→1.2%), 이혼(22.8%→22.9%), 사실혼해소(0.8%→1.0%), 위자료·재산분할(10.4%→10.7%), 친권·양육권(6.3%→7.7%), 양육비(7.0%→7.2%), 유언·상속(5.9%→6.3%)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부동산관련(0.2%→0.3%),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기타(0.4%→0.5%)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145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043건(20.4%), 전화상담 4,877건(75.4%), 통신 및 인터넷상담 225건(3.7%)이었다.

2017년 2월 본부 상담 통계

총상담 6,724			
법률상담 (6,109)			
면접	전화	통신	지상
1,230	4,681	196	2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426		148	41

* 2017/2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70,010건

지 부	총상담	법률상담					합계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면접	전화	통신	서신	기타				
서울(본부)	6,474	1,043	4,877	225			6,145	199	97	33
강릉 (033) 652-9555	73	54	10				64	7	1	1
구리·남양주 (031) 551-9976	184	101	54	1			156	26	2	
군산 (063) 442-1560	121	33	67				100	20		1
대구 (053) 745-4501	310	156	2	1		출장 90	249	61		
대전 (042) 520-5258	188	24	159				183		5	
제주 (064) 753-9421	173	30	133				163	7	2	1
동해 (033) 535-0188	86	39	46			출장 1	86			
목포 (061) 273-2514	158		157				157	1		
부산 (032) 667-2314	270	49	203				252	18		
성남 (031) 707-6661	299	175	83	5		출장 8	271	25	3	
수원 (031) 243-4600	343	140	155			출장 19	314	28	1	
순천 (061) 753-9910	199	45	144				189	3		7
충주 (02) 2238-6554	109	74	33				107			2
안동 (054) 856-4200	94	18	53				71	20	3	
울산 (052) 246-9568	117	31	78				109		4	4
익산 (063) 851-5113	225	67	152			출장 6	225			
인천 (032) 865-1120	282	110	143				253	19		10
전주 (063) 244-2930	146	66	49	27	1		143			3
청음 (063) 535-3705	90	37	44				81	9		
진주 (055) 746-7975	102	24	58				82	20		
창원·마산 (055) 261-0280	221	91	102	1			194	24	3	
청주 (043) 257-0088	165	59	66				125	34	6	
춘천 (033) 257-4688	128	27	11			출장 88	126	2		
태백 (033) 554-4004	160	125	20			출장 15	160			
평택·안성 (031) 611-4251	99	44	48				92		7	
제천 (043) 644-5690	99	22	75	2			99			
포항 (054) 283-7555	74	12	61				73			1
지부총상담	4,515	1,653	2,206	37	1	출장 227	4,124	324	37	30
총 상담	10,989	2,696	7,083	262	1	출장 227	10,269	523	134	63

**2017/1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44,851건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폭력과 자녀학대, 채무 등으로 아내를 괴롭힌 남편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등 판결

법률구조 2016-220

담당 : 신현정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9세)와 피고(남, 45세)는 2009년 11월 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5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초기부터 술을 마시고 원고와 사건본인을 힘들게 하였다. 특별한 이유 없이 괜한 트집을 잡아 집안 기기(노트북, 핸드폰 등)를 부수거나 사건본인의 장난감을 던지고, 당시 5세였던 사건본인이 말을 잘 듣지 않느냐며 물건을 던졌다. 이로 인해 사건본인은 유치원에서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었다. 또한 피고는 자신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빚을 지고, 이를 본인을 위한 자금으로만 사용했다. 피고는 채무를 지며 담보를 설정해야 할 때면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가전기기 등을 담보물로 제공하여,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집행으로 원고와 사건본인은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피고의 폭력성은 나날이 심해져 2015년 중순경에는 기물파손을 말리는 원고를 직접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6.11.2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 부터 2016.11.25. 까지는 연 5%의, 2016.11.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6. 11. 26.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항 및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빚을 아내에게 전가하고 가출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6-211

담당 : 김효정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52세)와 피고(남, 59세)는 1993년 12월 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다. 혼인생활 초기만 해도 원고는 피고와 함께 사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으나 이내 사업을 정리했고, 이후 피고가 어렵게 얻은 직장마저 그만 두면서 가족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원고가 일을 해야 했고, 양육과 일을 병행하며 힘든 생활을 했다. 그러나 피고는 다시 사업을 해보겠다며 가족이 생활하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를 부동산 사기로 탕진하기에 이르렀다. 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해지자 피고는 가족들을 두고 2010년 경 가출했다. 빚 부담은 고스란히 원고의 몫이 되었고, 채권자들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에게 독촉을 하며 위협을 하기도 했다. 피고는 그 이후 현재까지 연락이 없었는데 2016년 최근 피고 명의의 과태료, 채무변제 독촉장이 송달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탁아동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으로
위탁부모 선임**

법률구조 2016-251

담당 : 권미혜 변호사

사건명 : 미성년후견인 선임 등

내용 : 청구인1(여, 40세)은 전혼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사건본인(남, 12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청구인1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어렵게 되자, 2011년 2월 경 가정위탁센터를 통해 사건본인을 청구인2(여, 49세)의 가정에 위탁하였다. 이후 청구인1은 2012년 3월경 재혼을 한 뒤 자녀를 출산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하기가 현실적으로 더 어렵게 되었다. 반면 사건본인은 청구인2 내외의 보살핌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했고, 청구인2의 성년 자녀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사실상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이에 청구인2가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의 역할도 도맡게 되었으나 친권자가 아니어서 사건본인이 해외로 출국하거나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사건본인이 보다 안정적인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인1이 사건본인을 위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하고,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2를 선임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대구가정법원 2016.11.08.)

1. 청구인1이 사건본인을 위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함을 허가한다.
2.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2를 선임한다.

**외도하면서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은
남편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등 결정**

법률구조 2016-276

담당 : 김소이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반소

내용 : 타이 국적의 피고(반소 원고)(여, 31세)와 원고(반

소 피고)(남, 31세)는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8세, 남, 6세)을 두고 있다. 혼인 초기부터 원고는 일을 한다는 핑계로 피고와 자주 떨어져 지냈고, 피고는 일과 양육을 병행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최근에 피고는 원고의 SNS에서 다른 한국여성과 외도하는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원고는 오히려 피고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했고, 피고와 두 자녀의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양육비라도 함께 부담할 것을 간청했으나 원고는 이혼을 요구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28.)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 가. 350만원을 2016.11.30.까지 지급하고,
 - 나. 위 가항의 돈 외에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5회에 분할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3. 31. 100만원 씩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1회라도 위 분할 지급 의무를 지체하면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는 즉시 미지급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최초 지체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이 결정 확정일 기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명의로 보유하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에게 그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2016. 11.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25만원씩을 매월 15일 (2016년 11월분은 2016년 12월분과 함께 2016.12.15.에 지급)에 지급한다.
6.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7. 원고는 나머지 본소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는 나머지 반소 청구를 포기한다.
8.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이혼 전 상담프로그램-

2017년 3월 교육부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시달리는 비혼모
자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 상담을 포함한 상
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1박2일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17년 3월 31일(금) ~ 4월1일(토)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장소 : 용인 에버랜드
- ▶ 내용

1.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
은?' 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
용방법,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 등의 임대
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지원 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
한 강의 및 상담

2.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
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
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
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무용동작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4. 「용인 에버랜드 체험 활동」

- ▶ 후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전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3월 13일 3월 27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이야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
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무료
공개강좌

- ▶ 일시 : 2017년 2월 ~ 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1월, 8월은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정신건강 의학과 원장)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시	강의제목
3월 30일(목)	뇌의 속성과 다름
4월 27일(목)	마음의 구성과 감정
5월 25일(목)	관계의 뇌와 사랑
6월 22일(목)	분노의 의미와 기능
7월 27일(목)	마음읽기와 정신적 성숙
9월 28일(목)	전이감정과 부모 세대와의 갈등
10월 26일(목)	자기보호 위한 자기주장과 거절 공포
11월 23일(목)	친밀감, 관계의 유형 그리고 심리적 거리
12월 28일(목)	외도의 유형과 대처 / 임상 예를 통한 부부갈등상담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201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 I

성년후견 신탁의 필요성과 과제

2017년 3월 16일(목) 오후 2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성년후견 신탁의 필요성과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본상담소에서는 2007년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운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7월 ‘성년후견제도’ 시행 이후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와 사회복지제도의 수혜, 그리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써의 ‘성년후견제’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상담소에서는 특히 재산관리 측면에서 이미 후견적 기능을 하고 있는 ‘신탁제도’와 ‘성년후견제도’를 연계하여 피후견인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신탁제도의 활용과 제도 개선, 법 개정 및 구체적인 운용 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2017. 3.

● 좌장 : 김상용(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 배인구(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가사상속전문센터장)

|토론발표| > 조성혜(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전 한국사회법학회장)

정용신(서울가정법원 판사)

배정식(KEB하나은행 신탁부 리빙트러스트센터장)

현소혜(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창훈(한국자폐인사랑협회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부센터장, 변호사)

